



## 유럽 증시, 프랑스 경기부진 우려로 보합세

### 유럽 증시 리뷰

19 일(월) 유럽증시는 3 일 연속 강세를 보이던데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프랑스, 독일의 경제성장률 하향 및 경기침체 우려 부각되며 약세. (STOXX 50 -0.05%, DAX -0.1%, FTSE 100 0.2%, CAC 40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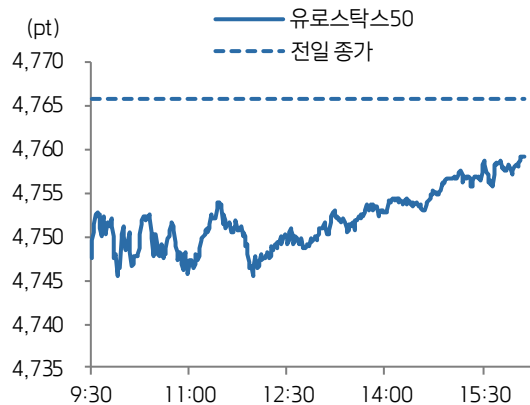
프랑스 정부는 경제 둔화를 예상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로 하향 조정.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자국 농민 지원 등 정부 지출 100 억 유로 삭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의 경기 둔화, 독일의 경기 침체 등이 요인이라고 설명. 앞서 유럽위원회는 올해 프랑스의 성장률을 작년 11 월 전망치 1.2%에서 0.9%, 독일 성장률 전망치도 0.8%에서 0.3%로 대폭 하향. 2월 초 OECD 역시 2024년 프랑스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6%로 조정.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이 시행된 후 세번째 보조금으로 자국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보조금 15 억 달러와 16 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 이를 통해 글로벌 파운드리는 뉴욕주 몰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 가량 늘릴 계획. 미국 상무장관은 "제너럴모터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안정적인 칩 공급이 확보될 것"이라고 언급.

중국 춘절 연휴 소비가 호조를 보이며 소비시장 회복 기대감 상승.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따르면 8 일간의 춘제 연휴(10~17 일) 기간 이용자의 해외 소비는 작년 동기 대비 140% 증가. 중국 내 여행 소비액은 전년 대비 47.3% 늘어난 6327 억위안(약 117 조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 대비로는 7.7% 증가. 이번 연휴 기간이 예년보다 하루 긴 8일이었다는 점도 여행 소비 증가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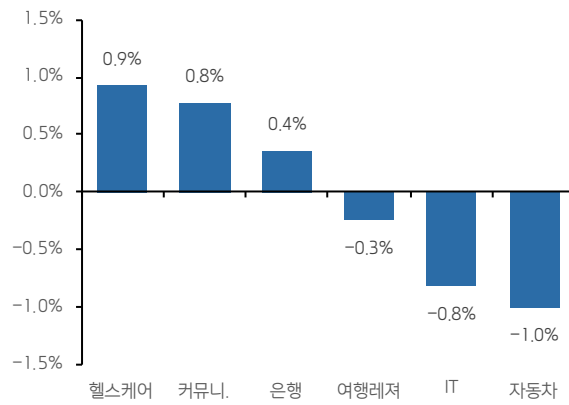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은 4,000 명의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고 '지능형 운전'에 중점을 둔 AI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총 35억 위안(약 486.2백만 달러)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샤오펑은 자사의 차량이 일부 기능을 반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Xpilot 이라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보유. 향후 3년 동안 약 30대의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며 올해 30만 위안 이상 가격대와 15만 위안 이상의 가격대에서 첫 모델을 출시할 예정

EUROSTOXX50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80.26	+1.19%	USD/KRW	1,335.06	-0.03%
코스피 200	360.88	+1.51%	달러 지수	104.25	-0.02%
코스닥	858.47	+0.1%	EUR/USD	1.08	+0%
코스닥 150	1,355.36	+0.33%	USD/CNH	7.21	+0%
S&P500	5,005.57	-0.48%	USD/JPY	150.13	+0%
NASDAQ	15,775.65	-0.82%	채권시장		
다우	38,627.99	-0.37%	국고채 3년	3.396	-1bp
VIX	14.71	+3.3%	국고채 10년	3.467	-1.3bp
러셀 2000	2,032.74	-1.39%	미국 국채 2년	4.642	+0bp
필라. 반도체	4,527.68	-0.67%	미국 국채 10년	4.279	+0bp
다우 운송	15,629.19	-1.74%	미국 국채 30년	4.436	+0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763.07	-0.05%	WTI	79.29	+0.13%
MSCI 전세계 지수	750.24	-0.04%	브렌트유	83.38	-0.11%
MSCI DM 지수	3,285.12	-0.14%	금	2029.4	+0.26%
MSCI EM 지수	1,016.23	+0.85%	은	23.04	-1.87%
MSCI 한국 ETF	64.19	+0.63%	구리	381.3	-0.6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보험,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32.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저 PBR 업종의 쏠림 현상 지속 여부 2. 외국인과 기관의 저 PBR 업종 내 매매 패턴 변화 3. 장중 중국 증시 움직임에 따른 관련주들 추가 변화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인 관계로 신규 자료는 부재했으나, 2월 전반에 걸쳐 특징적인 부분은 금리 경로를 둘러싼 연준과 시장간의 간극의 점차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것. 1월 FOMC, 2월 CPI, PPI 등 주요 이벤트를 거치면서 “상반기 인하 + 기존 연내 6 회 인하 -> 연내 5~6 회 인하 -> 연내 4~5 회 인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CME Fed Watch 상으로 확인되고 있음. 21 일 예정된 1월 FOMC 의사록, 연준 총재들 발언 등 주중에도 이 같은 간극에 변화를 줄 만한 요인들이 대기 중에 있음. 그 과정에서 현재 4.3%대까지 다시 올라온 미 10년물 금리의 방향성이 지난주처럼 증시에 숨고르기성 조정의 명분을 제공할지 여부가 주중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PPI 쇼크, 미 증시 휴장 여파에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화 기대감 등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저 PBR 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1.2%, 코스닥 +0.1%).

금일에는 휴장한 미국 증시, 경기 우려에도 보험세를 보인 유럽 증시 등 대외적인 영향력은 높지 않은 가운데, 전일 급등했던 저 PBR 업종들에 대한 차익실현 물량과 신규매수 물량이 혼재됨에 따라 지수 전반에 걸쳐 제한된 추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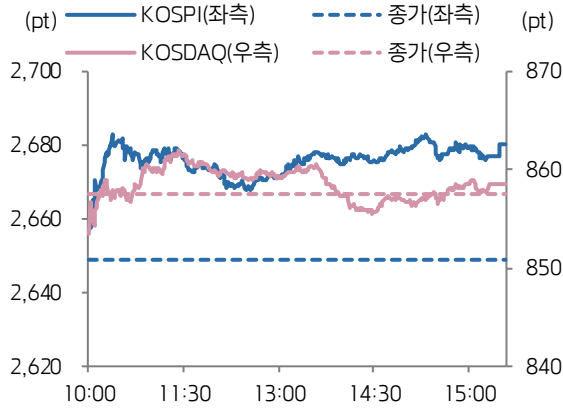
현 시점 수급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메인 수급 주체는 외국인으로, 2월 한달 동안 코스피에서 6.6조원 순매수하면서 4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11월 +2.9조원 -> 12월 +3.0조원 -> 1월 +3.5조원 -> 2월 6.6조원, 19일 증가 기준). 특히 1월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한국 증시에 순매수 베팅을 했다는 점이 기관, 개인 등 여타 수급 주체들에게도 증시 하단은 견고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음. 이는 미국발 인플레이 불안 등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위험선호심리를 유지시키고 있으며, 국내 고유 정책 모멘텀까지 가세함에 따라 최근과 같은 저 PBR 주도 장세를 연출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

글로벌 자산배분 관점에서도 한국 선호 현상이 있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주간 유출입을 보면(EPFR,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지난 8주동안 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국가 1위가 한국(+78.8억달러)로,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대만(+55.1억달러), 중국(+33.7억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꽤나 큰 상황.

더 나아가 2월(~14일) 한달 동안 한국에 유입된 자금이 44.8억달러로, 같은 기간 아시아 증시 전체로 유입된 자금인 88.3억달러의 50.7%를 차지하는 등 (휴장 여파도 있겠지만) 2월 들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편식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2월 같은 기간 중국 +29.4억달러, 대만 +12.2억달러, 인도 -4.8억달러 등). 그 가운데 2월 들어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은행, 증권, 유틸리티 등 저 PBR 업종에 집중됐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이들 역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주도의 저 PBR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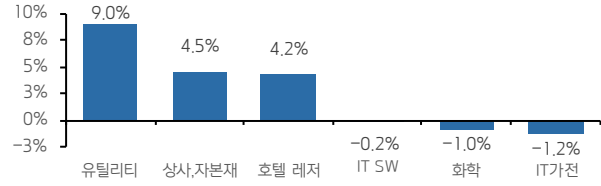
다만, 이들 자금 중 일부는 정부 정책 모멘텀에 베팅하는 성격 이외에 코스피 200, MSCI 한국지수와 같은 벤치마크 지수의 성과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 PBR 업종을 매수한 성격도 있으며, 저 PBR 업종에 단기적인 추가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19일 증가 기준, 월간 등락률: 코스피 +7.3% vs 자동차 +18.7%, 보험 +18.1%, 유틸리티 +14.9%, 은행 +14.6%, 증권 14.5%, 상사 및 자본재 +16.2% 등). 특정 주도 업종이나 주도 테마가 형성되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이 상승장의 특징인 것은 맞음. 하지만 이 같은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손바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만큼, 26일 예정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식화 전후로 수급 쏠림과 이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계.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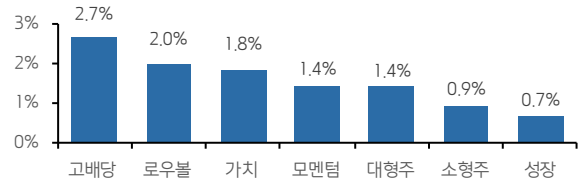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